

창세기를 통한 복음7

노아의 때와 예수님의 때

창조이래 태어났던 온 인류는 모두가 아담의 후손이다. 반면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이긴 하지만 특별히 노아의 직계 후손이다. 왜냐하면 홍수심판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노아가족 8명을 제외하고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죽었기 때문이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특히 자기 자신이 노아의 직계 후손이란 점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성경에 기록된 홍수가 전지구적으로 일어난 실제 심판 사건인지 아닌지를 자신 스스로 점검하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과 사도들도 홍수를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상황을 서로 비교하는 예로 사용된다. 이는 홍수심판이 사실임을 통해, 재림 때의 심판도 앞으로 일어날 역사적 사실임을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도 베드로는 홍수심판 이전 상황을 이렇게 말한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 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니”(벧후 3: 5, 6). 즉 홍수 당시 살았던 자들의 멸망 이유는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일부러’ 잊으려 한 것이라 했다. 그들은 명백한 창조의 증거를 보고도 의지적으로 이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초림)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창조뿐 아니라 추가된 두 개의 믿음을 더 요구한다. 예수님의 재림과 홍수심판 사건이다. 아울러 이 둘을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 받을 것도 함께 언급한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1)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2)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벧후 3:3, 4). 즉 첫째로 미래에 대한 믿음 즉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는 믿음이며, 둘째로 과거에 대한 믿음인데, 이어진 6절에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후자는 홍수심판 사건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왜 홍수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물(world)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와 같이 (변화 없이) 그대로 있다고 여기는 자’들로 표현했을까? 이는 성경은 만물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그대로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상은 창조 후에 타락과 홍수심판의 연이은 결과로 변형된 처음의 좋았던 모습을 상당부분 잃어버린 상태라고 말한다. 특별히 홍수심판은 ‘모든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로 시작해서 ‘천하의 높은 산이 잠기게 했고, 추위와 더위를 등장시켜, 홍수 이전의 모습을 변형시켰던 전지구적인 중대 사건이다. 즉 사도 베드로는 이 홍수가 처음 창조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했던 사건이라는 것뿐 아니라, 이를 믿는 믿음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것을 믿는 자들은 세상의 조롱도 받을 것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이다. 즉 홍수 이전에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 받았으며, 지금 우리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홍수심판을 믿어야 하며, 이 믿음 때문에 조롱 받는다는 뜻이다.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하는데 홍수심판이 그 예로 사용되는 이유에 대하여 베드로후서의 다음 구절에 더 분명히 드러난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벧후 3:7). 즉 홍수 이후 남겨진 지금의 하늘과 땅은 홍수심판과 동일한 말씀으로 앞으로 받게 될 불심판 때까지 보존되고 있다는 경고인 것이다. 그 공통점이란 둘 다 심판이다. 하나는 과거에 있었던 물심판, 다른 하나는 미래에 올 불심판.

단지 사도 베드로뿐 아니다. 예수님께서도 홍수심판에 대하여, 자신이 다시 오실 때



가 홍수 직전과 같다고 하셨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마 24:37-39). 예수님께서서는 홍수 직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며,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 전혀 모르고 살았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자신이 다시 오실 때도 이와 같다고 하시며, 홍수심판을 통해서 앞으로 오게 될 상태를 설명하셨다.

홍수심판에 대한 성경 그대로를 믿는 확신은 매우 중요하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앞으로 다가 올 심판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홍수의 확신을 통해 과거로 소급해 올라가면 처음 좋았던 창조 모습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지는 귀중한 다리가 된다. 참 흥미로운 것은 홍수의 기록과 증거들을 통해 전지구적 대격변을 알게 될 때 거저 역사인 진화론을 벗어나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세미나를 인도할 때면 항상 겪는 일이다(홍수의 증거에 대하여는 창조과학의 글과 도서를 통해 접할 수 있음). 서로가 독립된 주제인 것 같은데, 홍수심판을 이해하면 진화론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진짜 역사를 이해하면 가짜인 진화역사가 왜 틀렸는지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 대상을 바꾸어보면 진화역사를 사실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전지구적 격변인 홍수심판 사건을 믿는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행동은 발생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창조와 홍수사건을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 받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 면에서 베드로후서의 ‘조롱’이란 단어는 이 시대에도 놀랍도록 적절한 사용이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부터가 아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으로 끝난 것도 아니다. 복음은 창조-현재-미래의 전시공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분과 우리 사이의 실제 일어났던, 지금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사실이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눅 24:27). 여기서 ‘모든’이란 단어에 모세가 쓴 창세기는 제외되는 것일까? 예수님의 초림뿐 아니라 재림도 담고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등의 선지서는?

과연 창세기에 확신을 갖지 않는다면, 다시 오실 심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우리에게 막연한 것이 아닌 분명한 시작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시작에 대한 믿음은 창조자를 인정함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죄로 인한 죽음과 죄악이 가득 찼을 때 일어났던 심판은 앞으로 창조자가 행할 일들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중요한 근거이다.



이재만 부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개미 지옥과 **진화론 지옥**

진화를 전공하던 일반 자연과학을 전공하던 진화를 믿는 과학자들은 그들이 발견한 것들을 진화의 틀에 맞게 해석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하지만 계속해서 발견되는 새로운 증거들은 진화론을 점점 더 미끄러져 내려가게 한다.

예를 들면, 과학자들은 DNA나 단백질 등 생명체의 구성 물질들은 죽은 후 시간이 오래 지나면 빠르게 분해 되기 때문에 부서지지 않은 온전한 상태로 수백만년 동안 유지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경험적인 관찰과는 반대로 생체 물질들이 오랫동안 보존되는 듯한 발견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한 연구 논문(Geology, March 2013, v. 41, p.347-350)은 진화론적으로 3억4천만 년 전의 한 지층에 동시에 매몰 되어 있는 여러 종의 바다나리(sea lilies, Crinoidea) 화석에서 각 종에 특징적인 생명체의 물질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 바다나리에만 있는 생체 물질은 방향족의 퀴논(poly-aromatic quinones)들이었는데 지금 살아 있는 바다나리에 있는 색소 성분과 일치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논문의 저자들은 과학자들이 그 동안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화석에는 생체 물질들이 보관 되어 있는 경우가 훨씬 더 일반적인 것 같다고 주장하였다.

바다나리보다 더 훨씬 큰 관심을 끌었던 또 다른 예는 6800만 년 되었다는 공룡 T. rex의 뼈다. 아직 화석화 되지 않은 뼈 속에 혈관과 혈구 그리고 부드러운 조직(살점)이 썩지 않고 보존 되어 있었다. 이 결과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룡이 6500만년 전에 멸종되었다고 믿는 과학자들은 그 조직이 미생물로 오염되어 만들어진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하

기도 했다. 하지만 계속 된 연구를 통해 미생물들이 만들 수 없는 콜라겐이 발견됨으로써 그 조직은 공룡의 조직임이 확인 되었다(Scientific American December 2010, pp. 62-69, titled “Blood from Stone.”).

조금 더 오래 된 예지만, 2억 5천만 년 되었다는 소금 결정 속에 들어 있는 박테리아도 발견되었다(Nature 407 (2000): 897-900). 심지어 이 박테리아는 다시 살아나 DNA 분석도 이루어졌다. 미생물의 DNA가 그렇게 오랫동안 보존되어 미생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도 신기한 일이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박테리아를 ‘나사로 박테리아’라고 부른다.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는 그 박테리아의 DNA가 현재 살고 있는 같은 종의 DNA와 별 차이가 없어 DNA 돌연변이 속도가 현대 진화론자들이 예측한 것보다 5~10배나 느리다는 결론이 나왔다(J. Mol. Evol, 2002 Jan;54(1):134-7). 만약 돌연변이 속도가 예상과 다르다면 진화론자들이 연대측정에 사용하는 분자시계 방법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바다나리 화석

과학자들의 경험적인 예상과 달리 3억 4천만 년 동안 바다나리의 색소 성분이 파괴되지 않고 보존된 것이 사실일까? 6800만년 동안 공룡의 뼈가 신기하게 잘 보존 되어 그 속에서 혈관과 혈구와 조직이 발견된 것이 사실일까? 또, 2억 5천만 년 동안 박테리아 속의 DNA와 각종 단백질들이 부서지지 않고 보존 되어 그 생명체가 다시 살 수 있었을까? 아니면 수억 년, 혹은 수 천만년의 기간이 사실이 아니었던 것일까? 현재 상태를 보고 알고 있는 과학자들에게는 수수께끼가 아닐 수 없다. 보존 상태가 아무리 좋다 해도 수억 년 혹은 수 천만년이란 시간은 너무 긴 것이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증언인 성경을 통해서 보면 진화론을 믿는 과학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앞의 경우들을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성경은 약 6000여 년 전에 모든 생물이 창조 되어 함께 살았고, 약 4350여 년 전 전지구적인 심판인 노아홍수의 격변을 겪었다고 말한다. 바다나리, 공룡 뼈, 그리고 세균들이 이 때 보존이 되었던 것이다. 물론 이 때 만들어 진 모든 화석, 뼈, 그리고 세균들이 다 앞의 보고서들에서 나온 것처럼 온전하지는 않을지라도 수 억 년 혹은 수천만 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짧은 기간이 사실이었다면 이해 될 수 있는 경우들이 것이다.

개미 지옥, 갈매기 모양으로 움푹 파인 곳이 고운 모래로 덮여 있어 여기에 빠진 개미는 갈매기 밖으로 나가려고 무진 애를 쓰지만 모래가 흘러 내려 번번히 실패하고 오히려 점점 더 밑으로 내려가고 만다. 그 개미는 오래지 않아 그 갈매기의 주인에게 잡혀 먹고 만다. 진화론이 딱 그 형편에 와 있는 듯 하다.



최우성 박사
생리학



Duane Gish 박사님 소천 및 추도예배

지난 3월 5일 ‘창조의 불독’으로 불리셨던 Duane Gish(듀에인 기쉬, 1921-1913) 박사님께서 91세의 나이로 소천하셨습니다. Gish 박사님께서서는 현대 창조과학 운동의 1세대로 ICR(미국 창조과학연구소)의 설립 당시부터 함께 사역하시고, 특별히 진화론자와 300회 이상에 달하는 공개논쟁으로 잘 알려진 분입니다.

4월 6일에는 Gish 박사님께서 안수집사로 계시던 샌디에고의 Shadow Mountain Community Church에서 추도예배가 있었습니다. 박사님의 가족들, 함께 사역하던 ICR와 AiG의 창조과학 사역자들, 교회 담임이셨던 Tim LaHaye 목사님(Left Behind의 저자)과 교회 성도 등 25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가족들(2남 2녀)과 어렸을 때부터 사역을 지켜보고 사역을 함께 했던 ICR 연구소장인 존 모리스(John Morris) 박사님, 그리고 AiG의 사역자들의 회고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꼭 필요하던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찬사를 주었습니다. 창조과학선교회에서는 이제만 부회장 가족이 참석했습니다.

Gish 박사님에 대한 이야기는 이번 Creation Truth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Gish 박사님 추도예배에서 생전을 회고하는 ICR 소장인 John Morris 박사

16차 유학생 탐사여행 신청 마감

오는 7월 15-17일에 출발하는 16차 유학생 창조과학 탐사여행은 마감되어 더 이상 신청을 받을 수 없습니다. 17차는 올해 말 12월 23-25에 출발할 예정이며, 신청은 9월부터 가능합니다. 창조과학선교회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빙하시대 탐사여행 모집

6월 20-22일 LA에서 출발하는 빙하시대 탐사여행을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신학생을 위한 제 2차 창조과학 집중세미나

다음 세대를 위하여 마련 된 신학생을 위한 집중 세미나가 5월 6-7일 (월-화, 오전 9:30분 ~ 오후 4:30분) 사랑의빛선교교회(담임목사: 최혁)에서 열립니다. 정원(80명)이 거의 다 찼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사무실(213-381-1390)로 연락 바랍니다.





기쉬 박사님에 대한 기억

Duane Gish(듀에인 기쉬) 박사님을 처음 뵈는 것은 1995년 필자가 ICR(미국창조과학연구소)에서 대학원 첫 학기를 시작할 때이다. 대학원 학장이신 Ken Cumming 박사님께서 각 방을 돌면서 교수님들을 소개해 주실 때 Gish 박사님 방에 들어설 때였다. 필자를 보며 의자에서 일어나 “Welcome!” 하시던 다정한 모습이 기억난다. 미국 사람으로는 작은 키였다. 수수하고 단정하게 꾸며놓은 방과 책꽂이에 책과 함께 놓여진 화석들이 눈에 들어왔다.

1971년 Gish 박사님께서 Henry Morris 박사님께서 설립하신 ICR(1970년 설립)에 합류하시며 창조과학 사역에 본격적으로 발을 디디셨다. 특별히 진화론자와의 논쟁으로 유명하셨는데 “창조의 불독(creation's bulldog)”이라는 별명을 받았다. 그만큼 창조를 지키는데 충실했다는 말이다. 이 별명은 다윈을 옹호하는 사람으로 유명했던 헉슬리(T. H. Huxley)를 ‘다윈의 불독’이라고 해서 그 대조로 붙여졌다. 그러나 다윈의 불독과 달리 Gish 박사님은 논쟁 도중에 정중함과 유머를 유지한 크리스천 신사의 품위를 잃지 않았다.



1961년 Henry Morris 박사님의 ‘창세기 홍수(Genesis Flood)’가 출판되며 현대 창조과학 운동이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이때 미국에서 사역한 대표적인 두 분이 바로 Morris & Gish 박사님이다. 두 분은 수십 년을 함께 사역을 하였지만, 전달 방법에선 차이가 있었다. Morris 박사님께서 과학과 함께 성경을 변증하시는 분이라면, Gish 박사님은 과학만을 갖고 진화론자를 이겼다. Morris 박사님께서 80권이 넘는 수많은 책들을 통해 사역하셨다면, Gish 박사님께서 진화론자와의 논쟁과 세미나에 익숙하셨다. 어쩌면 각기 다른 접근법을 사용했지만, 사람들은 두 분 모두가 ‘성경이 사실이다’라는 동일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공감했다. 이는 두 분의 사역을 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경에 대한 견고한 믿음의 공통분모가 자연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이리라.

ICR이 이런 업적 가운데 가장 큰 것을 꼽으라면 “화석에서 진화론이 요구하는 중간단계가 없다”는 것을 학계와 일반인들에게 심어준 것이다. 실제로 1980년에 들어서면서 대표적인 진화론자들이 중간단계 화석이 없음을 인정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자세의 변화는 1970년대 ICR의 설립과 사역에 결코 무관하지 않다. 여기에 Gish 박사님의 역할은 결코 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화석에 대하여 정리하여 1985년 “진화론: 화석기록의 도전(Evolution: Challenge of Fossil Record)”이란 책을 저술했다. 이 책은 1995년에 “진화론: 화석은 여전히 No라고 말한다! (Evolution: Fossils Still Say No!”로 개정되었다.

Gish 박사님께서서는 한국이 창조과학 사역을 시작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 한국 기독교계가 아직 창조과학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던 시절인 1980년 CCC에서 주관했던 세계복음대성회에서 Gish 박사님과 Morris 박사님이 함께 강사로 초청되었다. 그때 통역을 담당하셨던 송만석 장로님(당시 연세대 교수)과 김해리 권사님(당시 서울대 교수)께서 “우리는 거짓말은 통역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서 먼저 세미나를 하면 확인하고 통역하겠습니다”라고 하셨다고 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숙소에서 통역자들 앞에서 리허설(!)을 하셨던 것이다. “내가 수십 나라에서 세미나를 했어도 리허설 해본 것은 한국이 유일해!” 이 말은 당시 두 한국 분을 칭찬한 말이었다. 그때의 Morris & Gish 박사님께서 뿌리신 씨가 한국창조과학회 설립에 결정적 역할을 했음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한국은 창조과학도 미국을 통해 선교(!) 받은 것이다.

필자가 ICR에 있을 때, 큰 입으로 늘 미소와 유머를 잃지 않으셨던 모습, 특히 연구소의 빈 방에 전등이 켜 있을 때면, “Save energy!”라고 말하며 전원을 끄셨던 모습은 기억에 남는다. 처음 ICR이 시작할 때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시절 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었던 것이다.

ICR이 San Diego에서 Texas의 Dallas로 이전했을 때, 2008년 이전 감사연회에서 Gish박사님을 뵈었다. 오랜만이기도 했고 86세의 노년이시기에 혹시나 해서 “절 기억하시겠어요?” 라고 여쭙자, “물론이지, 재만, 기억하고 말고!”하시며 저희 사역에 대해 물어보셨던 기억은 잊지 못한다. 이때 자신의 책에 싸인을 해주시던 그때가 마지막 뵈었던 모습이다(사진).

1960년 미국 고등학교 교과서에 진화론이 삽입되며 신앙의 위기에 들어섰을 때, 지혜와 담대함을 갖추셨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다. 과학을 통해 진화론자들을 꺾지 못하게 하셨던 Gish 박사님. 만약 이런 신앙의 선배님들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참으로 자랑스럽고, 그립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딤후 6:12)

이재만 / 창조과학선교회 부회장



창조론의 ‘불독’, 뒤엔 기쉬 박사를 기억하며



기쉬 박사와 모리스 박사

2013년 3월 6일, 하나님 곁으로 간 뒤엔 기쉬 박사(Dr. Duane Gish)로 인해 창조과학 연구소(Institute for Creation Research)에 슬픔과 함께 그의 사역에 대한 감사가 가득하다. 기쉬 박사는 수 십 년 동안 ICR의 리더였다. 우리 모두는 그를 그리워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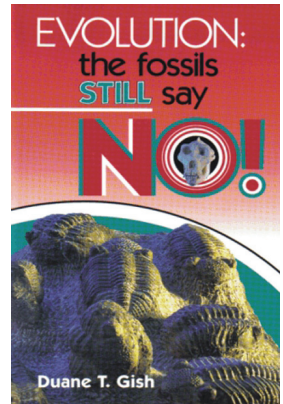
캔자스(Kansas)에서 태어나 캘리포니아 대학, 로스 엔젤레스(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에서 공부했고, 이후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UC Berkeley)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리고 미시간의 업존(Upiohn)이라는 제약회사에서 생화학 분야에서 일하던 중 1970년 ICR의 교수진에 합류했다. 1961년 「창세기 대홍수(the Genesis Flood)」출판이 있자마자 그는 또 다른 창조과학자들과 함께 1961년에 Creation Research

Society를 설립했고 1997년까지 그 학회를 섬겼다. 창조과학 사역의 기회가 많아지면서 헨리 모리스 박사(Dr. Henry Morris)와 새롭게 모습을 바꾼 ICR에서 창조과학 사역을 함께했다. 그의 인생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이겨낸 믿음의 걸음이었다. 당시에는 창조에 대한 증거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사역이 없었기 때문에 에게는 걸어갈 뚜렷한 길도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러한 믿음과 노력을 축복하셨다. 그는 특별히 자신의 사역 중심을 진화론으로 가득 차 있는 대학 캠퍼스에 두었다. 그의 학문적 탁월성과 훌륭한 연구 실적들은 생명의 기원에 대해 강연을 할 때에 도움이 되곤 했다. 그의 사역 초창기에는 성경적 세계관을 뒷받침하는 그의 완성도 높은 지식에 진화론자들이 많이 놀라기도 했다.

그의 사역이 진행됨에 따라 여러 번의 창조 대 진화 논쟁의 기회들이 있었고 그는 그 논쟁에서 늘 승리하였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르면서 그는 300회가 넘는

공식적인 논쟁에 참여하게 됐고 모든 논쟁에서 승리했다. 항상 진화론자들이 패했기 때문에 진화론자들 안에서는 기쉬 박사와 논쟁하지 말도록 공식적으로 권고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기쉬 박사는 결코 대립하거나 싸우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창조 증거들을 보여주는 것을 즐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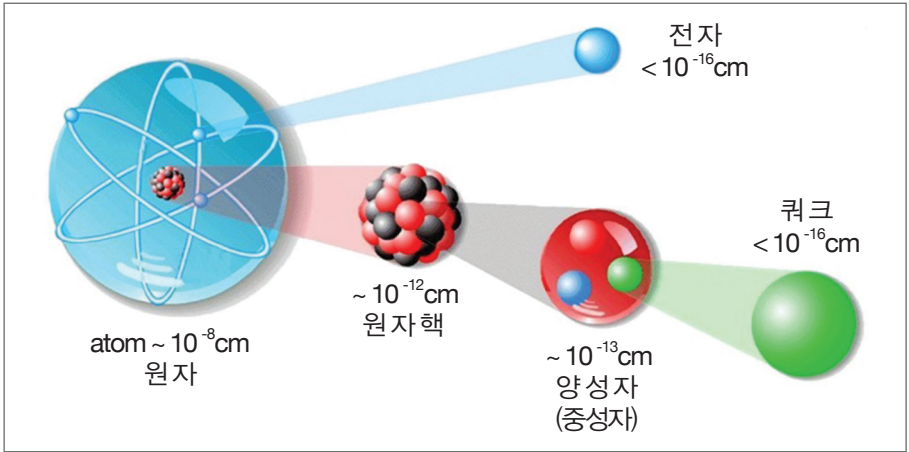
기쉬 박사의 캠퍼스 강의들은 언제나 진화에 대한 증거들을 과학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진행되었다.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가 성경 추종자라고 비웃으며 과학자로서의 그의 명성을 실추시키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신실하게 창조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들을 고수했다. 청중들은 그가 진리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알았다. 조쉬 맥도웰(Josh McDowell)은 ICR의 사역이 “복음 전도의 최첨단”이라고 이야기했다. 기독교 대학 그룹도 기쉬 박사의 토론에 대해 영혼의 큰 수확이라고 보고했다. 그의 강의들은 대부분 과학의 본질에 대한 설명에서 시작했고, 기원에 관한 내용이 얼마나 관찰되지 않은 추측인지를 설명했다. 그리고 화석 기록과 같은 과거 생명의 기록에 관한 연구를 보여주었다. 때때로 생명의 기원에 대한 실험이나 공룡에 관한 내용도 다루곤 했다. 아마도 그의 강연에서 질의응답 시간이 최고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박학다식한 지식과 매력적인 답변 방식은 청중을 압도했고 열렬한 진화론자들을 잠재우곤 했기 때문이다.



기쉬 박사는 「Evolution? The Fossils Still Say NO!」, 「A Creation Scientist Answers His Critics, Evidence Against Evolution, Dinosaurs: Those Terrible Lizards, and Dinosaurs by Design」을 비롯한 여러 권의 저서를 집필하기도 했다. 진화론자들이 그를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비난하더라도 기쉬 박사는 언제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들을 대했다. 강의에서는 유머감각으로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능력도 발휘했다. 그의 설명은 진화론자들의 것보다 훨씬 논리적이었고 근거 자료들도 더욱 적절했다. 한마디로 청중은 그를 좋아했다. 그런 모든 노력을 통해 오늘날 창조론은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운동으로 성장했다.

기쉬 박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이고 ICR 구성원을 비롯한 모든 창조과학 사역에서 그를 기억할 것이다. 그는 그 스스로 큰 자가 아니었다. 영적 권위 아래 거장과 같이 서 있었던 자이다. 뒤엔 기쉬 박사여, 정말 수고했습니다.

출처: ICR / 번역: 조희천



물질의 궁극적인 알맹이?

● 물질에 대하여 초보적이지만 체계적인 연구를 시작한 사람은 희랍시대 철학자 데모크리토스 (Democritus 460-370BC)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고체 덩어리 물질을 작게 깨뜨리고, 작게 깨진 것을 또 쪼개고, 그 것을 또 쪼개는 과정을 계속하게 된다면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그 물질의 끝에 이를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그 궁극적인 알맹이를 아토모스(Atomos)라 하였다. 현대에 와서 이것을 원자(Atom)라 부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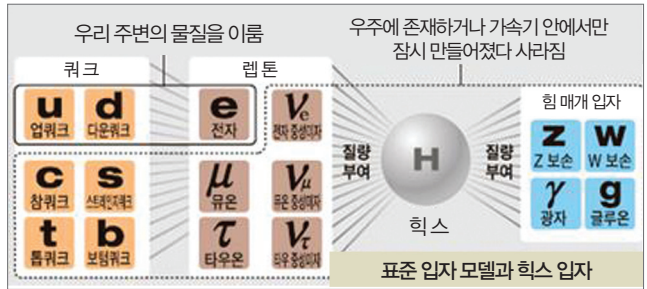
19세기까지 과학자들은 모든 물질이 원자라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궁극적인 알맹이로 이뤄졌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원자는 중앙에 핵이 있고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으며, 중앙의 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가 강력히 결합된 것이 밝혀졌다. 이 양성자와 중성자의 수에 따라 분류하고 체계화한 것이 바로 화학 교과서에 나오는 원소주기율표(Periodic Table)이다.

그 후20세기 중반에 이르러서 입자가속기가 개발되었고 이를 통하여 양성자와 전자를 분리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로써 더 이상 쪼갤 수 없다고 생각하던 원자설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다. 이어서 다양하게 개발된 입자가속기들을 통하여 원자핵을 양성자와 중성자로 분리하였고, 고에너지로 가속된 양성자빔(proton beam)을 서로 충돌시켜서 양성자를 더 작게 쪼개는 입자 실험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양성자 충돌 실험에서 쪼개져 나온 가상 입자를 과학자들은 쿼크(Quark)라고 부른다.

지금까지 고에너지 입자물리 분야의 과학자들이 연구결과로 제시한 표준모

델은 쿼크 입자 6개와 그들의 힘을 매개하는 입자 2개, 경입자 6개와 역시 힘을 매개하는 입자 2개로 모두 16개의 입자들이다. 그리고 이 16개의 입자들로 하여금 질량을 갖게하는 또 다른 입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기대해왔다. 이 입자가 소위 신의 입자 또는 마지막 입자로 알려진 힉스 입자(Higgs particle)이다. 그런데 지난 해 7월 4일 유럽공동체의 고에너지 입자가속기 연구소(CERN) 과학자들은 그동안 미스테리로 알려진 힉스 입자일 가능성이 높은 입자를 찾았다는 대대적인 발표를 하였다. (힉스 입자에 대한 내용은 Creation Truth 09, 2012 참조바람)

현재 힉스입자에 대한 연구는 과학계에 최대의 관심사이며 한창 진행 중이다. 그 결과는 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오늘도 첨단 물리학 분야인 고에너지 입자물리학에서는 물질의 궁극에 대하여 계속 도전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로 앞에서 언급한 여러 종류의 미립자들이 발견되었지만 이 발견들이 물질의 근원에 대한 답을 주기 보다는 오히려 물질 내부에는 복잡하고 신비한 조화가 있음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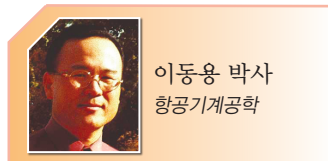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가장 간단한 물질로부터 복잡한 물질로 스스로 성장해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주의적 발상이다. 자연주의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먼지 보다 더 작은 티끌로부터 우주가 시작하여 은하계가 형성되었고 그 은하계로부터 태양계, 그리고 지구와 같은 행성이 생겨났으며, 또한 생명도 우연히 출현하여 오늘 우리가 목격하는 바와 같이 존재하는 것으로 믿는다. 그러므로 모든 근원이 물질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연구는 아무리 작고 간단한 입자일지라도 그것이 저절로 생겨날 수 없으며, 입자 세계는 우연과 저절로의 관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필연적인 질서와 조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우리들은 입자가속 충돌실험같은 최첨단 과학기술 덕택에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지혜를 더욱 실감할 수 있게 되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롬11:33)

[1] Perkins, D. H., Introduction to High Energy Phys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2] Veltman, M., Facts and Mysteries in Elementary Particle Physics, World Scientific Publishing, 2003





제15차 유학생 탐사여행

1/2-1/4 2013

창조과학 캠프를 통해서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쁘고, 하나님에 얼마나 답답하면 저에게 증거를 보여 주었나 싶어 부끄럽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 이나연 <스타빌 한인 장로 교회>

그 동안 풀리지 않는 궁금들이 많이 풀렸습니다. 너무 감사 드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께 확신 있게 주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나타난 과학적 증거들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이 사역을 도울 길을 찾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성광 <스타빌 한인 장로교회>

23년간 풀리지 않았던 내 궁금증을 풀어주신 최고의 여행이었습니다. 저를 여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 드리고 궁금증을 과학적 정거로 설명해 주신 이재만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이 창조과학 여행에서 배운 내용 그리고 이 여행, 한국 교회 그리고 제 지인 분들께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 국현근 <익산 북일교회/ 미시간 랜스 새소망 교회>

저의 목회사역 혹은 공부(사회과학)의 방향을 새롭게 되돌아 볼 수 있었습니다. - 심효엽 & 정종현 <퍼듀 한인 장로교회>

이 곳을 통해서 하루하루 행복 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 드리고 다음에 다시 이 경험을 통해 많은 변화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 윤정수 <리버티 한인 침례교회>

하나님의 행하신 창조와 심판의 흔적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무 유익하고 은혜였고 감동있는 일정이었습니다. 중 고등 학생들이 꼭 이 과정에 참여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처음이 좋았다” 감사합니다. - 박상근 <루이빌 새한 장로교회>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했던 저에겐 진화론이라는 것이 큰 벽이었습니다. ... 이번 여행을 통해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전공을 살려 아이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이 사실들을 전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 김민지<루이빌 새한 장로교회>

성경과 과학이 따로 떨어져 있다는 무의식적 생각이 이번 탐사 여행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특히, 노아 홍수와 빙하시대 설명을 듣고, 성경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명확한 사실이고, 무엇보다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 윤시은 & 윤모세

진화론은 이 세상의 모든 기원에 대한 의문을 과학적으로 설명한 것이고 창조론은 하나의 종교관으로 이해하고 믿어왔었습니다. ... 저도 창조과학자의 한 사람으로써의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 했습니다. 모든 과학자들이 과학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세상이

오기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 김태은 <산타모니카 온누리 교회>

여행 동안 봐 왔던 하나님의 창조의 증거들 그리고 심판의 증거들 모두 말로 표현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분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불운하게도 모든 증거와 성경 말씀이 머리로만 이해가 되고 믿어지지만 마음으로는 아직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디 제 마음속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민섭 <미시시피 스타빌 한인 교회>

많은 지식을 쌓아 갖고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던 사실들이 사실이 아님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 인간의 죄 때문에 처음 모습이 없어졌다 것에 제 자신을 돌아보고 갑니다. - 이선직 <랜싱 새소망 침례교회>

성경 속에서 마치 그저 옛날 이야기만 같았던 많은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다가왔고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어서 놀라우면서도 참 많은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옴의 고백처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믿음으로만 받아들였던 많은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도 make sense 하는구나 하는 깨달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이번 기회를 통해 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 조아라

오늘은 창조과학 여행의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행을 하면서, 마지막 날 이렇게 아쉬움이 남은 적은 없는 듯 합니다. 모태 신앙으로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접하였지만 그저 막연하고 연약한 믿음으로 성경을 읽어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창조과학 여행은 나의 연약한 믿음이 송두리째 바로 세워짐을 체험 합니다. - 주지환

다윈주의가 그렇게도 어마어마하게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지? 이렇게 정확하고 리얼하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그리고 노아홍수의 흔적들.. 그렇게도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패러다임'이라는 거대한 시대 정신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송두리째 뽑아버림에 놀랐습니다. - 장영미

내가 속해있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놀라운 성경의 역사의 증거임을 깨닫고, 나와 내 주위를 둘러 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시간이었다. - 김희진 <남가주 사랑의 교회>

중,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교과서에서 가르쳐 주는 진화론에 노출 되면서 제 가치관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 하지만 이번 탐사여행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명백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 최원화 <안산 동산교회>

어떻게 이런 놀라운 "사실" 들을 모르거나 혹은 온전히 믿지 못하고 살아왔는지, 선교사님의 여행 내내 깨달으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 맹지민 & 윤지은 <퍼듀 한인 장로교회>

● 편집되지 않은 간증은 Home page(www.hisark.com)의 "ACT 간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13년

- 5/6-7 신학생 집중 세미나 (이재만, 최우성), CA
- 5/10-16 창조과학 탐사여행 (안산 동산교회), 이재만
- 5/12 주님의영광교회(최우성), CA
- 5/17-23 창조과학 탐사여행 (성남 성안교회), 이재만
- 5/19 주님의영광교회(최우성), CA
- 5/24 남가주 해오름 교회(김선옥), CA
- 5/25-27 창조과학 탐사여행 (ANC 온누리교회), 최우성
- 5/25-27 창조과학 탐사여행 (ANC 온누리교회), E.M. 김선옥
- 5/26 LA 온누리교회 (이재만)
- 5/26 주님의영광교회(이재만), CA
- 5/27-30 창조과학 탐사여행 (수원노회 수기시찰 목회자), 이재만
- 5/31-6/2 Denver Korean Church, Denver, CO.(김선옥)

- 6/2 주님의영광교회(이재만), CA
- 6/3-6 창조과학 탐사여행 (시애틀 형제교회), 이재만
- 6/8 순회선교단 미주지부 (최우성), CA
- 6/10-12 순복음 라스베가스 교회 (이재만), CA
- 6/20-22 빙하시대 탐사여행 (개인모집), 이재만
- 6/20-22 창조과학 탐사여행 (주님의빛교회), 최우성
- 6/23 남가주 해오름 교회 (김선옥), CA
- 6/24-27 빙하시대 탐사여행 (뉴욕 목회자 협의회), 최우성, 김선옥
- 6/24-27 창조과학 탐사여행 (밴쿠버 성산교회), 이재만
- 6/28-7/4 빙하시대 탐사여행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 이재만
- 6/29-7/1 창조과학 탐사여행 (Korean Covenant Church of Marietta), E.M.김선옥

- 7/11-13 빙하시대탐사여행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 213-238-5791), 이재만
- 7/15-17 창조과학 탐사여행 (16차 유학생, 신학생 213-381-1390), 이재만
- 7/18-21 창조과학 탐사여행 (동산고등학교 213-381-1390), 이재만, 최우성
- 7/23-28 창조과학 탐사여행 (국제 기독교 학교 한국연맹), 이재만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 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CT



창조과학선교회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P.O. Box 819, Norwalk, CA 90650
Office Address | 10529 Leeds St., Norwalk, CA 90650
Tel. 213-381-1390 www.HisArk.com / hisark@gmail.com